

# 方劑學의 未來醫學에의 役割

康 舜 洙\*

## 〈目 次〉

- |          |
|----------|
| I. 緒 言   |
| II. 本 論  |
| III. 結 語 |

## I. 緒 言

한의학을 어떤 사람은 哲學的이라고 한다. 또 西醫學이 分析的인데 反해 綜合的이며, 機械論的인데 反해 生氣論的이고, 理論的인데 反해 臨床的이라고도 한다. 卽 東西醫學에는 懸隔한 差異點과 長短點을 가지고 있음은 確實하다. 그러나 一部 西醫學者들이 한의학은 非科學的이라고 하여 否定하거나, 또 一部 한의학者들이 西醫學에 比해 한의학이 優越하다고 믿고 싶어한다.

그런데 分明한 것은 西醫學은 날마다 發展하여 過去에 治療 不可能했던 難治病의 原因을 續續 糾明하고, 그 治療法을 開發하여 問題를 解決해 가고 있는 反面, 한의학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抽象的 理論에 바탕하고 있어 한 발작도 前進하지 못하므로 結局 過去에 한의학이 擔當해야 했던 治療領域의 病들을 現在에는 西醫學이 더 쉽게 治療할 수 있게 되어 한의학의 治療領域은 날로 좁아져 가고만 있

음을 否認할 수 가 없다.

예를 들면 2천년전 傷寒論治療法이 擔當했던 熱性傳染病을 西醫學의 豫防接種과 抗生劑로 解決하고, 身體의 傷害와 外科의 疾病은 痲醉와 手術이 專擔하고 있다. 또 診斷은 어떤가 몸안의 구석구석까지 探索 또 觀察할 수 있는 機械와 技術이 끊임없이 開發되어 實用化 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西醫學과 한의학 이들은 19世紀까지는 서로 비슷한 見解도 많았다. 예를 들면

(1) 体液病理說 (2) 自然治癒力을 基底로 한것 (3) 多味藥劑를 使用했던 것 等 病을 局所的으로 보지 않고 全體的으로 보는 体液病理說이 그 것이다.

그러나 西紀 1870年頃 以後 西洋에서는

- (1) 細胞病理說 (2) 細菌學  
(3) 有機合成藥物 等

한의학과 對照的으로 方向을 바꾸었다. 細胞病理細은 体液病理細과는 反對로 病은 局所的인

\* 圓光大學校韓醫科大學方劑學教室 主任教授

것이오 顯微鏡下의 組織檢査에 依해 細胞의 病的變化가 생기는 過程을 確認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病原性細菌의 發見과 함께 体液 病理說은 否定되게 되었다.

以後 西醫學과 韓의학은 다른 內容으로 發展되어 왔다. 그런 가운데도 一部 西洋에는 아직도 生氣論의 觀點에서 있는 植物療法(Phytotherapie)이라고 불리는 治療法이 傳해져 오고 있다.

韓의학은 科學的 눈으로 바라보면 奇異하고 터무니없는 內容이고, 대단히 刻묵은 醫學으로 보일 것이다. 事實 韓의학은 刻묵은 醫學이기는 하나 그 속에 버릴 수 없는 眞價가 現代에 까지 버티어 온 힘이 된 것이다. 그 힘이란 西醫學이 아직도 解決하지 못한 難治病들에 대한 解決의 可能性이 臨床效果에서 번득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韓의학의 基底的 特徵은 무엇인가. 여러 韓의학자들의 表現을 빌리면...

- (1) 實用性(臨床的으로는 強하나 理論的으로는 弱點이 많다는 뜻?)
- (2) 形式主義(運氣論 또는 鍼灸의 補瀉法)
- (3) 所要性(誇張이 많다)과 停滯性(發展이 없다)
- (4) 全機性(西醫學의 短點을 補完할 수 있는 強點임)
- (5) 政治性(內經의 정치思想)等……

學問의 發展은 無條件 肯定하고 受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既存事實에 대한 疑問을 提起하고, 思索하고, 實踐하여 確認(證明)해야 한다.

이러한 東西醫學의 狀況속에서 보다 前進하

는 未來醫學에 韓의학, 그 속의 方劑學이 지니는 位置는 무엇이며, 해야 할 役割은 무엇인가를 摸索해 보자.

## II. 本 論

韓의학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韓의학에서 方劑學이 어떤 位置에 있는가를 徹底히 認識해야 한다. 日本漢方界에 至大한 影響을 끼친 吉益洞東이 「醫事 或問」(1769年)에서 “醫者は 病을 治療하는 者이고, 病을 治療하는 것은 處方이다. 그러므로 醫學은 方을 배우는 것이다.”라고하여 方劑學의 重要性을 強調하고 있다. 大部分의 韓의학인들은 日常 患者를 治療하기 爲해 輕驗에 依하거나 그때그때에 冊을 뒤져 處方을 選擇하면서도 處方의 適應證 程度에만 關心이 있고 處方構成의 意義나 體系에 대해서는 別로 關心이 없다. 그것은 傷寒論時代以後 오랜 세월 隨證治療(辨證論治)의 情性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隨證治療는 既存處方과 患者의 證을 結合시키는 方法으로 어느 程度의 臨床的 便易과 效果를 볼 수는 있으나 그 處方構成의 根據나 動機에 대한 研究에는 等閑하게 된다. 또 一部의 韓의학인들은 本草學과 方劑學의 區別조차 하지 못한다. 本草學은 藥이 되는 植物 個個의 生態나 產地 또는 藥性等을 記述한 것이고 方劑學은 黃帝內經 素問 至眞要大論篇에서 言及했듯이 二味以上 多味の 藥材를 어떤 原則으로 配合하여 어떤 目的의 效用을 構成하느냐의 即 한 次元 더 높은 段階의 治療設計인 것이다.

本草書에 다음과 같은 配合例을 記述하고 있다.

例：人參：得升麻 補上焦之元氣 瀉肺中之火，  
 得茯苓 補下焦之元氣 瀉腎中之化，得麥  
 問冬 則生脈，得乾薑，則補氣  
 黃芪：得當歸 則活血，得白朮 則補氣，  
 得防風 則其功益大  
 蒼朮：得防風 則發汗，得黃柏 則勝濕，  
 得香附子 則快中下二焦之氣，得山梔子  
 則解朮性之燥

위의 예는 本草를 어떻게 配合活用하는가의  
 說明이며 藥性を 理解하고 應用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한 때 이와같은 것을 일본인들은 藥效의  
 「方向轉換」이라고 說明했다. 卽 한 藥材의 效  
 能이 配合되는 다른 藥材와 함께 方向轉換을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지금은 藥效의 方向  
 轉換이 아니라 두 藥材속의 類似한 藥性이  
 「共力作用」하여 그 方面의 效力이 強하게 나  
 타난다는 共力作用說이 主張되고 있다. 어찌되  
 었든간에 西醫學이 單一物質·單一成分을 追究  
 하고 있는 反面에 한의학이 有機物質들을 配  
 合하여 生體에 適用해 왔다는 것은 偶然이라고  
 해도 너무 對照的이다. 그것도 數千年동안 人  
 體에 實驗해 온 셈이다.

이와같은 所重한 方劑的 資料는 充分히 檢  
 討하고 確認하는 일조차 關心 外였다. 손쉬운  
 臨床活用處方集을 들치면서 똑 같은일을 되풀이  
 해 오고 있지않은가. 多辛한 일은 藥味の 數가  
 많을수록 副作用이 적고 效力은 微微하나 適  
 用範圍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西醫學에서처럼  
 病과 藥이 반드시 一致하지 않으면 包險하다  
 든지 하지는 않다는 事實이다.

한약에는 많은 長點이 있으며 이 때문에

한의학인들은 그 속에 安住하고 自己陶醉되어  
 한의학을 讚揚하며 學問的 停滯에서 벗어날  
 줄을 모르는 것은 아닌지……

이제는 잠에서 깨어날 때이다.

놀랍게 發展해가고 있는 西醫學도 아직 醫  
 學의 모든 問題를 解決하지는 못했을 뿐 아니라  
 解決해야 할 問題들은 가도가도 끝이 없다. 한  
 生命體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지나치게 細分  
 化하고 分析해 보려는 努力은 많은 事實들을  
 糾明하는 데 一翼을 寄與한 反面, 生命의 原  
 點에서 멀어져가는 一端이 있음도 否定할 수  
 없다. 이 點에 대해서 西醫學者들도 切感하고  
 있음은 다 아는 事實이다. 人爲的 技術의 發  
 達이 加해지면 日수록 自然的 生態에 대한  
 弊端도 늘어간다는 것은 오늘날 全人類에 擡  
 頭된 共同의 問題인 것이다. 따라서 오늘의  
 西洋科學은 다시 한번 뒤돌아켜 지나온 歷史를  
 省察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未  
 來에의 方向이 지금 바로잡혀 있는가를 確認  
 하여 더 늦기전에 軌道修正을 加해서 올바른  
 目標을 向해 나가도록 해야겠다. 現代의 西醫  
 學에 한의학이 寄與할 바도 바로 이런點에 있을  
 것이다.

西醫學이 解決하지 못한 疾病中에서도 많은  
 人類의 苦痛으로 남아있는 病에는 免疫機能의  
 障害로 일어나는 疾患이 많다. 그러므로 오늘의  
 醫學界에는 過去 어느 때보다도 免疫學에 대한  
 關心이 高潮되어 있다. 그런데 이 免疫學도  
 各分野別로 細分化되어 各己 다른 側面에서  
 研究되어지고 報告되며 이들 情報가 結局 언  
 전기는 오늘의 宿題를 풀 날도 오리라고 생  
 각되지만 한의학인으로 바라다 보면 人體를

生命이 制御하고 있는 機體로서 免疫機能도 生命의 制御機能의 一面으로 解釋할 수 있어 훨씬 다른 次元에서 研究되어질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細分된 一面에 適用되는 單一成分의 治療藥을 模索하는 西醫學과 하나의 統合된 機體에 適用되는 複合成分의 植物을 配合하여 治療藥으로 活用하는 韓의학의 方劑學과는 對照적이면서도 興味로운 것이다.

### III. 結 論

이들 醫學이 內面에서 研究되어진다면 더 빠른 時間內에 더 完璧한 結果를 期待할만 할 것이다. 現實로 現代西醫學의 免疫機能異常인 알레르기(Allergy)性疾患, 류마티스, 기타 혈액 질환 등에 韓약이 奏效하고 있는 境遇는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免疫機轉의 機能低下狀態로 볼수있는 잘 治療되지 않는 慢性炎症등에 나타내는 韓약의 効果는 刮目할만한 것이다.

앞으로 方劑學에 대한 研究에 좀 더 關心을

기우리고 科學的實驗을 통한 治療機轉糾明에 業績이 이루어지기 寄與하게 될 素地는 無限히 클 것으로 推測된다. 이를 爲하여 몇가지의 計劃을 생각해 보는 것도 뜻이 있으리라.

- (1) 歷代에 傳해 오는 處方들을 效能別로 整理하여 活用頻度を 統計處理해 보자.
- (2) 單用에서 複方으로의 發展課程을 追跡해 보자.
- (3) 한가지 疾病해 자주 配合되어지는 相須藥을 效能別로 整理해 보자.
- (4) 위의 結果를 차례로 實驗을 통하여 客觀化하자.

客觀化가 必要하지 않다고 主張하는 사람도 있지만 客觀化란 언제, 어디서, 누가해도 같은 結果를 얻을 수 있어야 學問的 價値가 있다는 것으로, 客觀化가 않되어 있는 點이 韓의학의 큰 弱點인 것이다. 또 一次元의 客觀化바탕위에 二次元을, 그리고 二次元의 客觀化바탕위에 三次元式으로 研究해 가는 것이 方劑學 體系化의 確實한 土臺가 될 것이다.